

국민 50% 술자리서 '폭탄주 경험'

전북농협 '예담채' 1등급 선정

국민 1회 평균음주량, 맥주 4.9잔 소주 6.1잔... 에너지 폭탄주 음주 늘어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한 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경험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명 중 1명은 두가지 종류 이상의 술을 섞은 '폭탄주'를 마셔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의 경우 4.9잔이었으며 과일주 등이 첨가된 과일소주의 선호도가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8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민 1회 평균음주량, 맥주 4.9잔 소주 6.1잔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 1잔(200ml)으로는 4.9잔, 소주 1잔(50ml)으로는 6.1잔, 탁주 1잔(200ml) 기준으로 3.0잔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맥주 5.6잔, 소주 6.4잔, 탁주 3.2잔)에 대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과일소주 등과 같은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0잔으로 2.7배나 증가했다. 이는 술의 선택에 있어 맛과 향이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적정 섭취 권고량과 유사한 수준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소주의 경우 적정 섭취 권고량(5.9잔)보다 1.4잔 더 많이 마시고 맥주와 탁주로는 적정 섭취 권고량(5.6잔, 4.2잔)보다 각각 0.1잔, 0.8잔 더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는 맥주, 소주, 탁주 기준 모두 WHO 제시 적정 섭취 권고량(2.8잔, 2.9잔, 2.1잔)보다 각각 1.4잔, 1.6잔, 0.4잔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고위험 음주 경험...

에너지 폭탄주 늘어

하루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여자는 5.9잔 이상 섭취하는 '고위험 음주'를 경험한 비율도 음주 경험자의 58.3%에 달했다.

고위험 음주 경험자는 2012년 66.2%에서 2013년 82.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에는 58.3%로 크게 줄었다.

고위험 음주를 경험한 사람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5.2%로 가장 높고 30대 62.4%, 40대 62.0%, 50대 57.8%, 10대 49.2% 등이다.

또 음주 경험자 중 폭탄주를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45.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55.8%에 비해 1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특히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에너지 폭탄주'를 경험한 사람이 2013년 11.4%에서 올 상반기 12.0%로 소폭 늘어났다. /뉴시스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평가에서 과수산업발전계획 인정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FTA기금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으로 지정됐다.

28일 전북도와 전북농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하는 '2016년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FTA기금)' 연차평가에서 전북 예담채 과수산업발전계획이 1등급으로 결정됐다.

전북 예담채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인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도 과수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인센티브 사업 예산과 농업인에게 2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중심으로 광역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시군간 단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이 1등급으로 결정됐다."

전북 예담채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인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고민형기자

추석선물은 현금·구매는대형마트 '선호'

사람들은 추석선물로 현금 구매처로는 대형마트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홈플러스가 오피서베이와 공동으로 20~40대 자녀가 있는 기혼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와 선물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추석 선물로는 현금을 구매처로는 대형마트를 선호했다.

추석 선물로 생각하는 상품으로는 현금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수·축산물(20.3%), 건강식품(14%), 상품권(8.5%), 생활용품(7.3%)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선물을 선택한 이유로는 현금, 상품권, 생활용품은 가장 실용적이라서, 농·수·축산물은 명절에 주로 많이 선물하는 아이템이라서 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 구매 장소로 53.5%가 대형마트를 선택했다. 선택한 이유로는 종류가 다양해서(53.3%)와 가격이 저렴해서(21%) 순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명절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비싼 선물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5만 원 이하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명절 선물 소비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 및 온라인 해당 선물을 선택한 이유로는 현금, 상품권, 생활용품은 가장 실용적이라서, 농·수·축산물은 명절에 주로 많이 선물하는 아이템이라서 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 구매 장소로 53.5%가 대형마트를 선택했다. 선택한 이유로는 종류가 다양해서(53.3%)와 가격이 저렴해서(2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 및 온라인 해당 선물을 선택한 이유로는 현금, 상품권, 생활용품은 가장 실용적이라서, 농·수·축산물은 명절에 주로 많이 선물하는 아이템이라서 라는 답변이 나왔다. /뉴시스

전북은행, 외국인 위한 '다국어 상품안내장'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외국인의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 및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다국어 상품안내장을 출시했다.

다국어 상품안내장은 전북은행에서 판매중인 외국인 전용 'Bravo KOREA Package' 상품(요구불 통장, 체크카드)에 대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총 4가지 언어로 제작됐다.

기존 한글 상품안내장과 같이 상품특징, 우대서비스 뿐만 아니라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또한 홈페이지 금융상품물을 통해 안내되는 상품 설명서 또한 다국어로 제공하여 상품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7월 JB금융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캄보디아 '프놈펜산업은행(PCB)'과의 시너지 창출과 국내거주 캄보디아인 근로자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어 전담직원을 채용, '캄보디아 데스크'를 경기도 수원지점내에 오픈하고 선데이 클래스 개최(한국어, 노동법, 금융상식), 외국인 전용상품 판매 및 PCB제휴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고민형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업용수 확보위해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지난 28일 현재 남원지역 관내 영농기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2.8%로서 평년 75.6%대비 69.8% 수준이고 강수량은 869mm로서 평년 1,050mm대비 83% 수준으로, 7월 6일 이후 무강우로 인하여 저수율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용수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한해 가뭄대책 상황에 적극 대응한 결과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나, 특히 등숙기에 접어들어 물이 많이 소요되는 시기에 섬진강 하천 수위가 내려가고 방산양수장(남원시 대강면 방산리)가동이 불가 한 상태에서 대강지구 96ha 용수공급을 위하여 중장비를 긴급히 동원하고 하상굴착(섬진강 하천 가제질)을 실시하여 용수를 공급 하는 등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남원=유영철기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지난 28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방우정청 -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지난 28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특송 물류비 및 판로개척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이용 활성화 캠페인 동참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가기로 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정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 등 협조 ▲중소기업 상품발굴 및 온누리상품권 우체국 환전확대 등 지원 ▲소통·경제·복지 증진을 위한 우정사업을 협조키로 했다.

전북지방우정청 김병수 청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네트워크를 가진 우체국이 전북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은 물론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에 앞장서고,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해와 어려움을 함께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건너면 양 기관에 도움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합심 노력과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며, 상호 유기적인 소통으로 협력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신병영 기자

방콕노선 동계 스케줄 오픈

이스타항공, 10월 30일~2017년 3월 25일

이스타항공이 2016-2017 방콕 노선 동계 스케줄 예약을 오픈한다. 2016년 동계스케줄은 2016년 10월30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 이용 가능한 항공편이다. 예약 신청은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되고 인천-방콕 노선은 편도 총액인 8만8,100원부터, 제주-방콕 노선은 편도 총액인 10만8,100원부터 제공된다. 또한 제주-방콕노선을 재오픈한다.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탑승가능하며 방콕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한층 넓어진 항공편 시간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방콕 노선은 작년 동계 스케줄 기준으로 탑승률 약 94%에 이르는 인기노선으로 오픈투가 항공편을 이용하면 좀 더 실속 있는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